서울대 법대 542~548점

표준점수 800점 만점…의대는 546~553점

입시 전문기관들 주요대학 배치표 작성

광주·전남 주요대학 합격선 18일 공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800점 만점 기준으로 542~548점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고려학력평가연구소·대성학원·유웨이중앙교육·중앙학원 등 4개 대입 전문기관이 입시설명회와 수험생 상담용으로 작성한 '2007학년도 전국대학 지원 배치기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법대 합격 가능점수는 고려학력평가연구소 548점, 중앙학원 544점, 유웨이중앙교육 543점, 대성학원 542점으로 나타났다. 이 배치표들은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등 4개 영역을 각 200점씩 800점 만점으로 계산해 만들어졌다.

서울대 의대의 합격선은 고려학력평가연구소 553점, 중앙학원과 유웨이중앙교육 547점, 대성학원 546점으로 추정됐다.

또 서울대 사회과학계열 합격가능 점수로 539~544점, 경영학과는 538~545점, 국어교육과는 538~543점, 외국어교육계열은 536~543점, 약학과는 533~543점으로 예상됐다.

연세대의 경우 의예과는 544~550점, 치의예과는 542~546점, 경영계열은 536~542점, 법학계열은 535~541점, 외국어문학부(영문)는 530~537점으로 전망됐다.

고려대는 의과대 542~546점 법과대 538~546점, 서강대는 경영학 531~537점, 성균관대는 의예과 544~550점 법학과 530~537점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화여대 인문과학부(영문)는 512~519점, 한국외대 영어통번역('다'군)는 527~535점을 합격선으로 잡았다.

경희대 한의예과의 합격선은 600점 만점(수리·외국어·탐구)에 414~421점, 한양대 의예과는 600점 만점(수리·외국어·탐구)에 414~419점, 한양대 전자통신컴퓨터 공학부는 600점 만점(수리·외국어·탐구)에 396~402점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요 대학과 달리 대학 자체별로 500점 만점 기준의 변형표준점수를 적용하는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학과 및 학부 예상 합격선은 광주시진학실협의회와 광주 대성학원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배치기준표 작성이 끝나는 오는 18~19일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주요대학 배치기준 표

대학	학과및학부	고려학력평가원	대성학원	유웨이중앙	중앙학원
서울대	법대	548	542	543	544
	사회과학계열	544	539	540	542
	경영학과	545	538	541	543
	국어교육과	543	538	538	541
	외국어교육계	543	536	537	540
	의대	553	546	547	547
	약학과	543	533	537	540
을지의대		531	533	533	535
대전대	한의예과	541	532	545	540
이화여대	인문과학부(영문)	519	512	520	518
중앙대	경영학	524	513	519	516
경희대	경영학부(가군)	457	513	519	520
	한의예과 (수외탐600점만점기준)	417	414	419	421
한양대	의예과 (수예탐600점만점기준)	417	414	418	419
	법학과	535 (다:537)	526	528	529
	건축학부 (수외탐600점만점기준)	398	394	392	395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수외탐600점만점기준)	402	398	399	396
연세대	의예과	550	544	546	546
	치의예과	546	542	545	544
	경영계열	542	537	536	538
	법학계열	541	535	535	538
	외국어문학부(영문)	537	530	531	535
고려대	의과대	546	542	544	542
	법과대	546	539	538	541
성균관대	의예과	550	544	546	546
	법학과	537	530	530	533
서강대	경영학	537	531	533	536
한국외대	영어통번역(다군)	527	533	528	535
	영어(다군)	528	531	529	533

나원참 〈7002〉 김종두

주재기자 채용 후 매월 돈 받아

모 언론사 본부장 체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4일 시·군 주재기자를 채용한 후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고 급여를 주지 않은 모 뉴스공급업체 전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김모(49)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씨를 검거했으며, 김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언론사 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는 뉴스공급업체 이외에 또 다른 정기간행물(주간지) 법인을 만들어 전남 서·남부 6개 시·군 주재기자 3~4명을 채용한 후 매월 일정액의 지대를 받고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대아파트 자연 훼손 입주자에 돈 못물린다

광주지법 판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발생하는 벽지나 장판 등 시설물의 자연적인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보수·수선책임은 임대아파트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차 계약시 시설물의 감가상각비용을 임차인에게 지우고 있는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계약 약정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8단독 김성흠 판사는 14일 "박모(여·38)씨가 임대 아파트 회사인 리젠시빌(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했던 17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닌 자연적인 마멸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명도시에 이를 보수 또는 수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와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동 ○○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아파트 거실, 방의 벽지와 장판 보수비용에 소요됐다며 171만원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자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복 입기' 퍼포먼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광주·전남지사'가 1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벌인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내복 입기 캠페인. 내복을 입고 겨울철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면 연료비를 20% 절감할 수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루돌프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내복 선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번엔 시청앞 야적시위 청사파손 현물배상 주장

경찰, 원천봉쇄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벌일 농산물 야적시위를 원천봉쇄하고 도로 점거 ,화물 차량과 농기계 도로 방치, 농산물 투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15개 중대 1천500명을 동원 광주 진입로와 광주 시청사 등지에 배치해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은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현물보상을 주장하는 쌀 등 농산물 야적시위를 강행하기로 해다.

앞서 지난 1일 광주시는 시청 앞 FTA 반대 폭력시위(지난달 22일)로 인한 청사 파손과 관련 시위 단체와 가담자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로또 수수료 195억 지급하라"

법원, 국민銀 패소 판결

'온라인 복권'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석웅 부장판사)는 14일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천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LS측이 "복권 판매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두 달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겨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수수료를 낮춘 2004년 5월 이후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KLS측은 선고 직후 "승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에 명시된 9.523%의 수수료율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율이 도출되기를 원한다. 선고 결과가 협상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절도 20범 풀려나자마자 낙지 훔쳐

쌍나팔

○…경찰에서 풀려난 상습 절도범이 경찰서 문을 나선지 하루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철창행.

○…14일 광주 동부경찰에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조모(47·특수절도 등 전과 20범)씨는 지난 6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 시장 내 G수산에서 수족관 유리창 2장을 벽돌로 깨뜨린 뒤, 산낙지 40마리(시가 14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조씨는 지난 6일 오전에도 조선대학교 병원 내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훔치다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는데, 당시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입건키로 하고 석방했었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